

# 진영 “기초연금 갈등이 사퇴 이유.. 업무복귀 안해”

## “국민연금과 연계안 지금도 반대.. 양심의 문제”

### 靑과 갈등설 인정... 새정부 인사파동 확산 조짐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끝내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며 그간 제기된 청와대와의 갈등 설을 인정, 파문이 일고 있다.

진 장관은 29일 낮 서울 신사동 캐롤라인빌딩에서 열린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그만 사의를 허락해 달라”고 말해 복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이 정호원 국무총리의 두 번에 걸친 사표 반과 28일 업무복귀 촉구에도 사퇴 결심을 굽히지 않은데다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진 장관 사퇴 파동은 새 정부의 인사파동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진 장관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제가 반대해 왔던 기초연금안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국회를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최대의 막장 드라마”라고 즉각 성토했고 나섰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청와대 발(發) 최대의 막장 드라마가 공직사회를 강타하고 있다”면서 “한 조직의 수장은 발기벗겨져 강제로 쫓겨나고, 또 다른 조직은 혼외아들 의혹을 받아온 채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을 받고 물러난 것과,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해야 할 진 장관이 기초연금 축소 논란 속에서 국무총리의 거듭된 만류에도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다.

배 대변인은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진 장관 간의 갈등설을 청와대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제가 반대해 왔던 기초연금안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국회를 야당을

진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진 장관의 사퇴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당측 감을 감추지 못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대부분은 진 장관의 이번 행동에 적지않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론의 내용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듯 일단 외부로는 말을 아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담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공약사항으로 얘기했던 것으로 지금 와서 소신과, 양심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진 장관 자신이 입장이 있을 테니 노코멘트”라고 했고, 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은 “개인의 선택이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 핵심 당직자는 “기초연금의 주무 장관이라면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안을 잘 설득하고 입법화를 해야 하는데 사의를 표명하니 참 난감하다”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왜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신사동 캐롤라인빌딩에서 열린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날 진 장관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최석락 복지부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

## 朴대통령 “기초연금, 안타깝고 죄송” 거듭 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거듭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데 이어 것이다.

이와 관련,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9일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발언을 열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해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해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이것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달 6~12일까지 세월호 다자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잇따라 방문한다.

## ‘원전정지’ 국민 부담액 올 3조원 넘을 듯

원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23기의 원전 가운데 9기가 고장으로 정지해 2조845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다른 전원에서 전력을 구매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이다.

지난해의 경우 원전이 정상 작동했다면 kW당 146.91원에 불과했을 전

력 평균구매단가(SMP, 계통한계전력)가 154.80원까지 치솟으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연루된 원전 비리로 원전 3기가 동시에 정지하는 등 최대 10기가 멈춰선 올해는 초과 비용이 3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전적 적자 누적의 원인이 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해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해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이것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달 6~12일까지 세월호 다자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잇따라 방문한다.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광역시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쌍암동 무인텔  
 대지:1760㎡ 건물:2821㎡  
 감정가격:46억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국토정보통신빌딩 1001호)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도천동 창고 대지 2,500㎡,건평 500㎡ 매매 18억
-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45천(보증금 8천, 월800만),직영수입 별도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45천
- \* 첨단 구본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 나주 혁신도시시인구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1,980㎡ 매 6억45천
- \* 완도군 악산면 토지 11,000㎡ 매 8억4천
- \* 장흥군 장평면 대지 및 전 13,165㎡ 매 3억4천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기타**

- \* 광산구 보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 동천동 대지 705㎡, 건물 185㎡. (수익률 좋음) 매매가 16억5천만원.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수완지구 대지 316㎡, 건물 632㎡ 매매가 15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점 제1종일반주거 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금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채동욱 사표 수리...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은**

**연수원 14·15기 가능성 높아**  
**김진태·소병철·길태기 물망**

청와대가 ‘혼외아들 의혹’으로 지난 13일 사의를 밝힌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사표를 보름만에 수리함에 따라 검찰은 다시 수장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

28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후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검찰은 길태기(연수원 15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총장 직무대행)를 맡는 형태로 지휘부를 운영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차기 총장 인선을 위해 조만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 구성 등 40일~최대 두달 걸려 11~12월께 취임할 듯**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총장 후보를 추천위 검증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은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됐다. 채 전 총장은 추천위를 통해 임명된 첫 총장이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검사장급 이상 경력을 가진 검찰 출신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인 각계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어 외부로부터도 심사대상을 천거 받은 뒤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 3명 이상을 검찰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한다.

추천위 구성과 후보자 천거, 심사를 거쳐 장관 추천 과정에는 한달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한 경우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결국 조만간 추천위를 구성해 차기 총장 임명까지 최소 40여일에서 최대 두 달 이상이 소요돼 11~12월께 취임할 가능성이 있다.

차기 총장은 검찰 내부 관행이나 현재 고위직 인력 풀 등을 감안할 때 사법연수원 14~15기 중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고검장급인 16기 중 일부가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검찰 지휘부가 법원에 비해 매우 연소화돼 있다는 점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채동욱 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14기 또는 한 기수 밑인 15기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검찰 고위직 중 14기는 없으며 재야에서는 지난 4월 퇴임한 김진태(61·경남) 전 대검 차장 등이 거론된다.

15기로는 길태기(55·서울) 대검 차장과 소병철(55·전남)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16기로는 고검장급 5명이 있다. 16기 총장이 배출될 경우 관행상 현재 지검장급인 7명을 비롯해 16기 12명 중 다수가 용퇴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인 채 총장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취임 180일만에 검찰수장직에서 물러난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